

이재명 “대통령 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지역 피해자에 충분히 보상... 합리적 지원책 마련 광주, 대한민국 최고 AI 도시 육성... 인프라 확충 “광주, 사회적 어머니” 3박4일 호남 공략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공항을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3자간 이견으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무안군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군용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며 “지역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어떤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편익의 일부는 때 손해를 채워 주면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롭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가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GPU(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 칩을 5만개를 사서 여기(광주)에 배지하겠다고 했더니 2000장 이상은 수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수요가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유세에는 19대 국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신인사장을 지낸 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김대중의 뜻과 꿈을 이를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보고 바란다”고 회답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전남 나주에서 한 유세에서는 “(당선되면) 집권 기간이 5년에 불과한데 남의 뒤를 쫓는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고 즐겼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나리의 모든 역량은 국민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세에 참석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위해 시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득권자의 영예를 채우고, 특정 정치 집단과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멸절시키는 데 쓰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양곡류 개량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아무거나 거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을 거부하고, 거부에 거부해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해 본인이 거부당했다”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힘은 민주당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부터 호남에서 지지층 총동원에 나섰다.

18일까지 호남에 머문 이 후보는 “민주당에 호남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당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고 (호남이 당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참으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분할 차별 전략에 따른 소외 등 이중 소외를 겪으며 ‘민주당 잘 돼야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나’ 섭섭하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밟고 눈 팔아 키우면 뭐 하나’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 건너겠다”며 “6월 3일이 지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당 정부가 ‘자식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골목경제 살릴 유일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전통시장 최초 광주 대인시장·남광주시장상인회 지지 선언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대인시장에 이어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에 나섰다.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는 17일 지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골목상권이며, 지역의 심장은 전통시장”이라며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실천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코로나 매출 탕감과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대책,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대폭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등은 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정확히 짚은 정책들”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우리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미는 유일한 민생 후보”라고 강조했다.

강경미 대인시장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도 지난 16일 대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를 ‘서민과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강 회장 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골목상권이며, 지역의 심장은 전통시장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정세의 삼중고 속에서 버텨온 상인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말이 아닌 실천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매출 탕감과 장기분할상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청년·여성 상인 지원 확대 등은 상인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정책들”이라며 “이재명은 골목경제를 살릴 진짜 민생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홍기원 광주시의원도 참석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 상인 여러분의 지지선언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다시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전통시장에서 이뤄진 첫 공식 지지 선언으로, 향후 타 지역 상인 단체의 연쇄적인 지지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석화산업 지원 등 여수 공약 발표 환영”

주철현 “이재명 후보의 지역 맞춤형 해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지역맞춤형 ‘우리 동네공약’에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포함해 총 5분야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18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번 여수시 공약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성으로 구성됐고, 실용주의 정치 철학과 국민 중심 국정운영 비전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마련한 지역 맞춤형 해법”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선, R&D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해안 균형발전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약도 발표됐다. 각종 특례와 지원을 담은 특별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요트와 수상스포츠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해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내년 9월 개최되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COP33 유치 등 향후 국제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기 국제선 운항 공항으로 승격하고, 활주로 연장을



로 항공 안정성을 강화해 남해안 남중권의 산업과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도 약속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 개최를 기우위기에 대응하고 섬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수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지역맞춤형 여수 공약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이뤄낸 높은 공약 이행률과 유권자의 체감 성과가 밑바탕이 됐다”며 “여수가 전남 제1의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돋울 수 있도록, 이 후보가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주·별첨리뷰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